

# 漢字隨筆

2016년 문화로 읽는 중국문자 수강생 編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 목차

끊을 수 없는 因緣 .....	정재원	1
靑春을 보다 .....	이서정	2
가장 효과적인 중국문자 접근법: 열린 사고에 기반을 둔 유연한 해석 .....	강은유	5
童과 일터의 어린 땀방울 .....	이현지	6
잠과 꿈 .....	이하림	7
석양, 그리움, “慕” .....	박주경	9
보이지 않는 영혼도 사람을 기준으로 형상화하다 .....	이성은	10
금(禁)줄; 부정(不淨)을 금(禁)하다 .....	김근아	12
무제 .....	김송	13
八의 의미로 보는 중국 .....	김은비	14
종교, 주술과 한자 - 그 오랜 역사 .....	정민철	16
우리는 왜 한자를 배우는가? .....	조현성	17
잃어버린 흥미를 찾아서 .....	고동민	19
시대를 역행하는 근본주의자들 .....	신중현	19
淸廉 曰, “이러려고 만들어 졌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	정민정	21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았다 .....	박예지	22
漢의 글, 漢字와 오늘날의 中國문자 .....	김태양	25
‘추상적임’에 대한 고찰 .....	장은서	27
글자가 반영하는 시대 .....	염규리	29

## 끊을 수 없는 因緣

정재원

어떤 한 청년이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고 무슨 책을 보시는지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세상 사람들의 혼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다. 청년이 노인을 다시 자세히 보니 붉은 실이 담긴 주머니를 차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노인에게 물어보자 노인은 그것이 '부부가 될 사람의 발을 묶어주는 실'이라며, 청년이 나중에 야채 장수집 딸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청년은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다가 이후에 결혼을 하였다. 자신이 결혼한 아내는 야채 장수집 친딸은 아니었지만,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야채 장수 유모의 손에 길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헛소리라 여겼던 옛날 그 노인의 말이 그대로 맞았던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중국의 월하노인月下老人 고사이다. '빨간 실' 이야기의 원조 격 되는 것은 월하노인 고사이지만, 빨간 실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운명의 빨간 실'이라는 이야기로, 서로 만나게 될 운명인 남녀의 새끼손가락은 빨간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응답하라 1997> 9화 '인연의 실'에서도 내레이션으로 소개된 바 있어 젊은 층에서는 중국의 월하노인 고사보다는 일본의 '운명의 빨간 실' 이야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두 이야기는 실을 묶는 부위(발과 새끼손가락)와 노인의 등장 유무에 있어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빨간 실이라는 소재와 그 실이 남녀의 운명을 정해놓는다는 설정은 일치한다.

한글 사전에서 '맺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끄나풀, 실, 노끈 따위를 엮어 매듭을 만들다'라는 뜻 외에도 '관계나 인연 따위를 이루거나 만들다'는 뜻이 존재한다. 이번 학기 <문화로 읽는 중국문자> 강의를 수강하며 糸과 관련된 한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 따위를 묶는 행위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 가운데에서 約과, 수업시간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約의 기본적인 뜻은 <설문해자>에서 '纏束也(엮어 묶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실을 묶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뜻이 추상적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다' '규제하다'라는 의미가 생겨났다. 규칙이나 약속 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놓는 것과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結은 糸과 吉이 합쳐진 글자이다. 일본의 문자학자 시라카와 시즈카는 굵은 축고를 큰 도끼 모양의 성스러운 도구로 봉하여 틀어막는 것이고, 結은 묶어서 틀어막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結은 간절한 마음이 꼭 차 있는 글자인 것이다. 일본 고전문학작품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는 '어린 군君이 원복元服(성년이 된 상징으로 입는 옷) 때 처음으로 맺은 자주색 끈에 당신 딸과의 영원한 인연을 약속하는 마음이 맺어져 있을 까요?'라는 대사가 등장하는데, 끈은 맺는 행위에 인연을 약속하는 마음과 연관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남녀의 애정을 약속하는 매듭에 '결불해結不解'라는 것이 있는데,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만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한 가닥씩 묶어 내려간 옛 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한나라 말기에 지어진 일련의 작자미상의 오언시를 묶어 놓은 시집인 《古詩十九首》의 제18

수 <客從遠方來>에도 남편과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인의 마음이 결불해에 잘 드러나 있다.

客從遠方來 遺我一端綺 먼 곳에서 온 나그네가 비단 한 단을 주고 갔네  
 相去萬餘里 故人心尚爾 서로 만여 리나 떨어져 있지만 옛 마음은 아직도 변함 없구나  
 文彩雙鴛鴦 裁爲合歡被 원앙 한 쌍이 새겨진 비단을 잘라 합환금(부부가 같이 쓰는 이불)을 만들  
 고  
 著以長相思 緣以結不解 긴 그리움으로 솜을 채워 넣고 이불가를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꼭  
 묶었네  
 以膠投漆中 誰能別離此 옷 속의 아교같은 우리 사랑, 어느 누가 떼어 놓을 수 있으리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을 이르는 중국의 성어 ‘結不解緣’은 이 시의 緣以結不解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향가집 <만엽집>에서도 남녀는 서로 약속을 할 때 끈을 맺고, 잠깐 헤어질 때에도 끈을 맺어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매듭을 푸는 일이 없었다. 끈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끈의 매듭이 풀어지는 일이 있다면 무언가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였다. ‘내 처가 추억의 실마리로 삼으라고 달아준 끈이기에 실처럼 가늘어져도 나는 풀지 않겠습니다’, ‘나니와難波에 다녀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처가 달아준 끈이 끊어져버렸다.’ 등의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단순히 실이라는 사물을 묶는 행위가 고대에서부터 한·중·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징성을 지니고, 그것이 이어져서 비슷한 설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했다. 동시에 남녀 간의 약속과 끊어지지 않는 마음뿐 아니라, 남녀간의 인연이란 하늘이 이미 정해두어 거역할 수 없는 운명적 관계라는 동아시아의 공통적 사상의 근원 또한 실과 관련된 한자를 통해 찾을 수 있어 놀라웠다. 반면, <비정상회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서양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 거부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뜻하는 ‘인연’이라는 개념과 이를 뜻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인연이라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주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인연을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인연일지도 모르니 잘 대해야 하고, 인연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니 잘 대해야 할 것이다.

## 靑春을 보다

이서정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빼 끝에 스며들어가는 열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幼少年)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 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한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자가 몇 자 있다. 그것은 처음 보는 어려운 모양의 한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마주쳤던 한자들이다. 예를 들면 있을 존(存), 있을 재(在), 웃을 소(笑)자 같은 것들이다. 평소 그 한자의 어원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기에, 원래 알던 한자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숨어있던 의미는 더욱 새롭게 다가왔다. 이 글에서는 ‘청춘’의 구성자인 푸를 청(靑), 봄 춘(春)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풀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할 때, 청(靑)과 춘(春) 모두 풀과 관련이 있는 글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물론 청(靑)이 풀의 푸른 빛깔을 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글자의 형태에서 풀처럼 보이는 모양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풀의 색’보다는 단순히 ‘푸른 색’이라는 의미만을 인식하고 있었다. 춘(春)의 윗부분이 풀의 모양이라는 것은 더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는데, 나는 이 글자에 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따듯한 태양(日)에서 봄을 떠올릴 뿐이었다. 이러한 시각적 깨달음 외에, 내가 청춘 이 두 글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나는 풀을 좋아한다. 식물을 꽤 좋아하는 편이다. 지금은 곰 발바닥 모양에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웅동자’라는 귀여운 다육식물을 기르고 있다. 식물을 좋아해서 초록색을 좋아하는지, 초록색을 좋아해서 식물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록색도 좋아한다. 제일 좋아하는 색을 꼽으라면 언제나 초록색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봄도 좋아한다. 초록색과 갖가지 알록달록한 색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따듯한 봄의 풍경을 좋아한다. 그런데, 식물의 푸른 빛과 봄을 뜻하는 두 한자를 한데 모아 만들어진 ‘청춘’ 이 단어는 좋아하지 않는다. 청춘은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의 소재로 썼을 정도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단어이다. 대표적으로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민태원의「청춘예찬」이란 작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어떤 영감이나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는 단어가 아니었다. 청춘이 모두 풀과 관련된 글자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풀이 가득 들어간 단어인데도 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였다.

청(靑)의 아랫부분은 붉을 단(丹)이고, 윗부분은 날 생(生)으로 소리부(聲符)인데, 자형이 변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생(生)은 싹이 흙을 비집고 나오는 모습이고, 단(丹)은 염료를 나타낸다. 『說文解字』에서는 청은 동방의 색을 말한다고 한다. 동방은 초목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청은 봄날에 피어나는 초록색의 어린 싹의 색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청의 푸른색이란 바로 자연의 순수한 색을 가리킨다. 한자수의 저자도 청은 자라나고 있는 식물의 색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청(靑)의 윗부분을 날 생(生)자로 보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나는 식물의 형태(丰)로 보았다. 어쨌든 ‘자연의 풀색’을 지칭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춘(春)은 햇살(日)아래 땅을 비집고 풀(屮)이 돋아나는 모양을 그려 ‘봄’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가운데의 둔(屯)자는 소리부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둔(屯)이 종자에서 새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이기 때문이다. 『玉篇』에서는 ‘둔(屯)은 만물이 생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자수의 저자는 춘(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따듯한 햇살(日)이 비출 때, 두 손을 이용하여 싹이 돋아난 씨앗(屯)을 토양에 심고 있는 것이다. 마치 제때에 파종하기를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교훈적 의미를 가진 것 같다’라고 풀이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건강부회(牽強附會)식 해석이라는 생각이 든다. 종자마다 파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햇살 아래 종자를 심는다는 행위로 봄을 의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그래도 명백한 사실은, 봄을

의미하는 한자에 땅을 비집고 올라온 새싹의 형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자연의 푸른색을 뜻하는 청(靑)과 봄을 뜻하는 춘(春)이 만나 청춘이라는 한 단어가 되었다. 청춘이란 단어는 서한(西漢)의 유향(攸向)이라는 학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楚辭·大招』에서 “青春受謝,白日昭只”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봄철이 도래하며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뜻이다. 이때부터 많은 문인들이 청춘을 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점차 봄이라는 의미보다 청년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시 「洛陽女兒行」중 “狂夫富貴在青春”라는 표현에 사용된 청춘이 바로 젊은 시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청춘’이라는 단어는 봄이나 젊은 시절이라는 뜻보다 ‘활력, 생기’등의 뜻을 상징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사무엘 올만은, 그의 시 「청춘」에서 청춘을 이렇게 묘사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 마음가짐을 뜻하니니 /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니니 /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니니 / 때로는 스무 살 청년보다 예순 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청춘을 의지력, 감수성, 신선함, 용기 등의 어떤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젊은 시기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기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리키고 있다. 대체로 열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 정신이 가득한 모습이다. 한마디로 ‘활기’가 넘치는 상태라면 예순 살 노인도 청춘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청춘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군가 나에게 “청춘이다”라고 했을 때, 활기가 넘쳐나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괜한 반발심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청춘일까? 나는 용기보다 두려움이 더 많고, 도전 정신보다 망설임이 더 많으며, 탁월한 정신력보다 나약한 의지를 지녔다. 만약 이런 나도 청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청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청춘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느낀 점은, 청춘이 아닌 자들이 청춘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상은이 부른 「언젠가는」의 노래 가사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기 때문일까? 이미 젊은 시절이 지나간 사람들이 묘사하는 청춘이 오늘날의 ‘청년 시기’를 잘 그려낼 수 있을까? 과거를 회상하며 청춘의 기억이 더욱 더 미화되진 않았을까?

이러한 의구심에서 수업시간에 공부한 한자의 해석을 토대로 청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다시 한번 靑春의 한자를 뜯어지게 쳐다보았다. 한자를 보니, 이전에는 아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솟아나는 새싹이 가득한 장면이 상상되었다. 풀의 푸른 빛을 뜻하는 청(靑)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색이라는 점이다. 또한 단일한 초록색이 아니라, 연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한 다양한 색이다. 춘(春)은 따뜻한 햇살 속에 다양한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다. 싹이 돋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 흙을 밀어내고 혹은 겹겹질을 비집고 밖으로 돌아나는 과정은 힘겨운 과정이다. 역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척 하지 않아도, 봄날에 자라나는 새순처럼 우리의 자연스러운 빛깔 그대로 청(靑)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는 열정적이고, 어떤 이는 소극적이고, 어떤 이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이는 현실에 안주하여 안정만을 추구하더라도 이 다양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모두 청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청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곧 땅을 비집고 나아가 사회에 싹을 틔워야 할 나이이다. 그 때의 우리 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춘(春)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처럼 온 몸으로 활동하며 생명력을 표현하지 않아도, 열심히 햇살을 머금고 물을 빨아들이며 조용히 성장한다.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사는 것만이 청춘은 아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젊은 시기를 청춘이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가장 효과적인 중국문자 접근법: 열린 사고에 기반을 둔 유연한 해석

강은유

‘문자는 무조건 암기가 답이다’라는 관념은 나의 오랜 습관과도 같은 것이었다. 모름지기 새로운 글자와 단어는 외워버리는 것이 가장 손쉽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아마 어린 시절 외국어인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전공인 중국어를 구사하는 지금까지, 새로운 언어를 대하는 태도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기에 ‘문화로 읽는 중국문자’의 첫 수업을 듣고 나서도 문자, 특히 한자를 마주하는 나의 자세는 한동안 꽤나 수동적이었다. 이 수업도 역시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한자를 암기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여겼던 것이다. 추측하건데 첫 수업을 들을 당시에 이 수업의 과목명이 내게는 그저 ‘중국문자’로 다가오지 않았나싶다.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전반부에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중국문자를 해석할 때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 각 문자의 창작 시기에 대응되는 문화적인 배경을 배울 수 있었다. 조금 솔직해지자면 처음에는 이질감이 컸다.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매 수업마다 온전히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정말 한자에 관한 영역에서만만큼은 구제불능인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무렵, 다시금 공부에 열의를 갖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날도 교수님께서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한 장의 피피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다. 아마 설문해자 속 자의적인 해석의 맹점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신 자료일 것이다. 여러 한자들이 나열되어있고, 그 옆에는 각각의 한자에 해당하는 터무니없는 해석들을 적어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 한자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아예 무시한 채 유아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해석본이었다. 자료의 열토당토 않는 해석 덕분에 당시 많은 학우들이 웃을 수 있었는데 나는 한편으로 웬지 모를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분명 우스꽝스러운 해석임은 틀림없으나 한자는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높아진 한자의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전공자인 나조차 한자는 유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완벽한 문자 체계이기에 저명한 학자들만이 향유하며 연구하는 분야라고 여겨왔다. 하물며 일반 대중은 한자를 얼마나 경직된 시선으로 바라볼지는 구태여 거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한자에 대한 아무런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레 한자가 익숙해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히 욕심이다. 어떤 문자를 배우든지 그에 대한 적정 수준의 노력과 열정은 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 소양을 다지게 도와준 일등 공신은 바로 한자수와 설문해자, 그리고 한자어원문화사전이다. 벼 화(禾)와 관련된 한자들을 소개하는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몇 번이고 정독했던 위 세 가지 자료는 내게 앞으로 계속해서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를 혁혁히 세워주었다. 간체와 번체가 섞인 자료들을 읽다 보니 혼란을 느끼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이따금 해석에 대한 전의가 상실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모르는 그림 대하듯 한자를 암기했을 때와는 차

원이 다른 이해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로울 리(利)를 예시로 삼아보고자 한다. 벼 화(禾)와 칼 도(刀)가 합쳐진 글자로 <한자수>에서는 ‘칼을 휘둘러 곡식을 수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한자의 본래 의미는 이해하겠으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롭다’의 의미로 확장된 경로가 의문이었다. 어원문화사전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었다. 농경 사회였던 당시 사회적인 맥락으로 미루어보아 곡식을 수확한다는 것 자체가 그 누구에게나 이로운 일이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날카롭고 예리하다는 본래 의미에서 그 뜻이 확장되어 현재 ‘이롭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설명이 타당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생판 모르는 한자를 두려움 없이 해석해보고자 하거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자수와 설문해자 그리고 한자어원문화사전까지 총동원하여 의미를 파악하려해도 도저히 그 설명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항상 한 가지의 정확한 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한자 해석에 있어서 열린 사고와 유연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자칫 한 가지 답만을 구하기 위해 편협한 사고로 한자를 바라보다, 다양하지만 타당한 여러 해석들을 간과할 수 있음을 배운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파악하며, 무엇이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린 사고와 유연한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 童과 일터의 어린 땀방울

이현지

수업시간에 童(아이 동)의 어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설문해자에서는 ‘죄지은 남자를 童이라 하고, 죄지은 여자를 媵이라 했다. 건으로 구성되고, 重의 생략형이 소리다.’라고 설명한다. 또 매울 隹, 눈 目, 흙 土로 구성된 글자로, 아이의 눈을 찔러 노예로 삼았던 풍습에서 형성된 글자라는 해석도 있다. 한자수는 아예 童을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어린 죄수’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설명을 듣고 충격과 동시에 몇 년 전에 읽은 어린이 노동자의 현실과 관련된 글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고대에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린 죄수’라니, 가슴이 답답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값싼 생산력을 얻기 위해 아무 죄목이나 붙여 착취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읽었던 글 속 아이들의 현실은 참담했다. 먼 나라에 사는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였지만 지금도 그 때 받은 충격이 생생하다. 작고 여린 아이들이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인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노동자가 무려 3억 5,2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60%가 14살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한다. 즉 세계의 어린이 7명 중 1명은 노동자다. 이 많은 아이들 중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일터로 향하는 아이는 단연코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현실이 더욱 속상하고 안타깝다.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사회와 제도의 보호라도 받

아야한다. 하지만 보호는커녕, 아이들을 노동자로 만든 모든 가정과 사회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 가정은 빈곤을 핑계로,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을 운운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것이다. 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어린 아이들을 일터로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아이 스스로가 노동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라면, 주저 없이 그들을 막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다.

어린이들은 공장의 딱딱한 기계나 광산의 쿼퀴한 석탄이 아닌 글자 읽는 법과 세상을 보는 따듯한 시선을 먼저 배워야한다. 그래야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시련을 이겨낼 내공을 쌓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차가운 현실을 배워야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童자의 어원을 배운 이후로 이 글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童의 어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동네(里)에 서서(立) 노는 아이를 뜻한다는 해설도 있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이런 해석이 정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매년 6월 12일은 UN 국제 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 어린이 노동 반대의 날'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기업의 양심적인 경영철학이 어린이 노동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노동자 아이들이 아이답게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童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 터무니없는 옛날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잠과 꿈

꿈 몽(夢), 잘 침(寢), 잘 매(寐), 깨어날 오(寤), 병 병(病), 병 질(疾)

이하림

꿈을 굉장히 자주 꾸는 편이다. 거의 매일 꿈을 꾸다. 대학생이 된 요즘에야 몇시간 밖에 못잘 때도 있고, 기절하듯 잠에 들때가 있어 꿈을 꾸지 않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매일 꿈을 꿔다. 매일 꾸다 못해 하룻밤에 꿈을 세 개씩 꾸기도 했으며, 쪽잠을 자도 꿈을 꿔다. 꿈에서 일어나면 잊어버릴까 꿈의 내용을 비몽사몽간에 중얼거렸다(寤). 그리고 생생한 꿈의 내용을 아침상을 마주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며 함께 해석하는게 일상이었다. 그것은 내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하나의 의식(儀式)이었다. ; 꿈의 내용으로 하루를 점치거나, 최근 나의 심리상태를 점검하는 것. 내 사례는 그 행위가 매일 같았다는 점에서 유별나게 보일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나만의 개인적인 의식은 아니다. 간밤의 꿈을 말미암아 요즘의 심리상태, 혹은 미래를 점치는 습속은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화는 고대인, 상나라인이 꿈 몽(夢), 잘 침(寢), 잘 매(寐), 깨어날 오(寤), 병 병(病), 병 질(疾)자를 만들 당시의 문화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고대사회』에 의하면 “꿈이란 상당히 기이한 경험으로 각종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장치이다. 심지어 오래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대인들은 꿈을, 신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계시를 전하고자 할 때 통하는 매개체라 여겼다. 꿈은 신의 계시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 꿈이 행운을 가져올지 불행을 초래할지 점을 쳐야 했다.” 또한 “갑골문에서 꿈과 질병은 모두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상나라 사람들은 보통 땅 위에서 잤으며, 침대는 보통 죽음의 의식과 관계있는 물건이었다. 때문에 중병에 걸리면 침대에 눕히고 죽기를 기다렸다. 당시에는 의약이 발달하지 못해 사망률이 높았다. 병이 들며 최악의 방

편으로 환자를 침대에 눕혔고, 사람들은 침대를 보기만 하면 곧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침대에서 자다'는 곧 질병을 나타내게 되었다. 아마 몽(夢)자의 의미도 정신을 황홀하게 하여 침대에 누워 신과 만나 계시를 얻고자 하는 풍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꿈의 내용을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 점으로써 그것을 해석했으며, 질병(疾病)은 신이 내리는 형벌인 점에서 침대라는 맥락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다시 나의 사례로 돌아가보자면, 상나라인들의 이런 사상이 전혀 근본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꿈에서 봤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데자뷰(dejavu)가 되어 생생하게 재현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죽음이 예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꿈을 해석하며 파악된 근래의 심리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런 우연과 필연의 일치들은 나로 하여금 꿈과 수면이 무언가 미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주어, 한동안 꿈을 연구하겠답시고 심리학 책과 뇌과학 자료들을 들추어 보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다.

꿈에 신비함을 부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자 했던 것이 상나라 사람들과 우리 뿐이었을까?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잠이 들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간다고 믿었다. 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했다. 또 바빌로니아인들은 좋은 꿈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악몽은 악마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한편, 주의(呪醫), 아프리카 카피르족의 주의를 꿈이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인디언의 여러 부족들은 꿈을 통해서 신령의 의지가 계시된다고 하였고, 꿈은 신령의 욕구하는 소리라고 해석하였다. 해몽(解夢)도 신의 의지계시라는 관념이 있는 등원시사회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렇듯 꿈을 신성시했다. 현대의 우리에게 문화며 육체를 물려준 고대인들도 분명 같은 이치로 꿈을 신성시 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냥 신성시 하기에 꿈에 대해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이 너무 많다. 실은 우리가 꾸는 꿈은,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 깬다고 인식되어지는 그 '꿈'은 우리가 깨기 직전 마지막으로 꾸는 꿈이다. 많은 이들이 교양서적, TV의 교양 프로그램,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얽은 수면 상태를 뜻하는 '렘수면'이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꿈'은 렘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표상(表象)작용의 의식(意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방에 꾸는 꿈은 평균 5개 정도로, 꿈의 길이와 내용은 모두 제각각이다. 우리는 단지 깨어날 때 기억하는 꿈만을 꿈으로 치는 것이다. 또한 꿈은 실질적으로는 부정적 경험들을 재현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점 최소화하는 완충적 기능, 경험한 내용들을 기억으로 정리(재현)하여 저장하는 기능,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욕망을 표출 및 해소하는 기능 등 각종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이 뇌과학과 심리학의 발달로 이미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예지몽과 데자뷰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해설이 어느정도 가능해졌다. 데자뷰란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나 망각된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 있거나 꿈으로 표출되었다가 그것이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되살아나는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 예지몽 또한 과거의 유사한 경험이 왜곡되어 나타난 꿈이 시기적절하게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는 해설이 가능하다.

이렇듯 꿈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꿈꾸는 사람의 뇌파 검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잠은 아직 미지의 세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자를 통해 꿈에 대해 짚어가다보니 자연스레 든 의문이 있었다. 꿈처럼, 오래전부터 미지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분야가 아직 있다. 바로 죽음(死)이다. 어원문화사전에 따르면 사(死)에 반영된 죽음에 대한 인식은 극히 사실적이다. 죽은 사람의 뼈를 앞에 두고 제를 올리는 모습. 어째서 죽음까지 가게하는 질병(疾病)에는 신성성을 부여했으면서 죽음자체에는 것처럼 사실적인 관념을 보였는지가 의문이었다. 또 이전에는 신비함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수면과 꿈이라는 영역을 개척해낸 과학이 이후에는 죽음의 영역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다.

어원 문화사전에는 형성자로 결론지었지만, “잠에서 깨어 비몽사몽간에 ‘뭔가를 중얼거리다.’”라는 寤의 품에 대한 한자수의 풀이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맞는 듯하다.

처음 가본 곳인데 이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느끼거나 처음 하는 일을 전에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주변의 환경이 마치 이전에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대부분 꿈속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데자뷔 현상이라고 한다.

## 석양, 그리움, “慕”

박주경

한자의 구성 원리를 배우면서 특정한 의미를 가시화된 부호인 한자에 담아내는 중국인들의 지혜에 여러 번 감탄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담아낸 한자들은 특별히 더 그러했다. 예를 들어 ‘慕’는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였는데, 이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면 ‘태양이 사라지는 모습’ 즉 저녁 시점을 상형한 상부와 ‘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하부가 합쳐진 글자이다. 두 뜻을 더해 의미를 만들면 ‘저녁시점의 마음’이 곧 ‘그리움’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해석을 보며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은은한 시구를 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황혼의 빛을 내는 석양의 모습과 사람이 읊는 시 한 수가 마치 그림처럼 펼쳐지며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연상시켰다. 慕는 ‘석양’이라는 시각적인 심상과 ‘시’라는 청각적인 심상이 어우러져 감정을 표현해 낸 신기한 글자였다.

이에 나는 다시 한 번 중국인들의 지혜의 경륜에 감탄하며 당시 중국인들이 글자를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낸 데에는 그들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과거 중국인들의 경험 속에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순간은 ‘그리움’과 같은 감정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의 시는 날리는 꽃잎과 석양의 모습, 즉 자연이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매개로서의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落花(낙화)

- 이상은(李商隱)

高閣客竟去(고각객경거)小園花難飛(소원화난비).參差連曲陌(참차연곡맥)迢遞送斜暉(초체송사휘)  
腸斷未忍掃(장단미인소)眼穿仍欲歸(안천잉옥귀).芳心向春盡(방심향춘진)所得是沾衣(소득시침의).

나는 이 시를 읽으며 쓸쓸한 가을바람이나 겨울 저녁의 차가운 공기, 혹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것들은 나에게 그리움 혹은 아쉬움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연 모습이었다. 나의 경험을 곰곰이 반추해보니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촉발하는 것은 대부분 자연이었다. 혹은 자연으로 인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감정을 극대화되기도 하였다. 우리가 봄이나 여름에 나무나 들에 돌아나는 새싹에 가슴이 설레는 것도, 가을과 겨울에

떨어진 낙엽과 차갑게 부는 바람에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끼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중국의 한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에도 민족 내면의 흐르는 보편적 정한(情恨)을 자연물과 어우러지게 표현한 시들이 있다. 그 중 ‘그리움’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이 떠올랐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 해 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시적화자가 지저귀는 까마귀나 흐르는 강물 앞에 입을 향한 미련과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극대화 되는 모습이다. 나는 이것을 보고 생각했다. 자연은 그 본연이 티 없이 순수하듯 현실 속에서 때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순수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마치 그리운 마음이 석양 앞에서 복받친 ‘慕’처럼 말이다.

## 보이지 않는 영혼도 사람을 기준으로 형상화하다

이성은

유구한 한자의 역사를 배우며 가장 한자가 깊게 와 닿았던 때는, 고문자의 형태를 통해 중국의 문화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자에는 인체를 표현하고, 인체와 사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낸 글자들이 많다. 현재의 한자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갑골문에서부터 출발하는 한자의 형성과정을 보면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이 한자에는 인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자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한자가 가깝에 와 닿았던 순간은, 귀(鬼)를 배우는 순간이었다. 귀(鬼)는 현시대에서도 전혀 생소하지 않은 글자로 귀신(鬼神), 악귀(惡鬼), 마귀(魔鬼) 라는 단어에서 사용된다. 이 세 개의 단어는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뜻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공포스러운 대상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귀(鬼)가 공포스러운 대상을 나타내는데에 쓰이는 것과는 다르게, 갑골문에서 귀(鬼)는 분명히 무언가를 쓰고 있는 무릎 꿇은 사람의 모습이다. 교수님은 이를 보이지 않는 귀신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는 방상씨의 모습을 재현한 것, 커다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하셨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설명 모두 귀(鬼)라는 글자는 田의 가면을 쓴 ‘사람’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귀(鬼) 이외에도 외(畏)도 갑골문에서는 귀(鬼)와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異)도 귀(鬼)와 같은 가면을 쓴 사람이 팔을 벌리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외(畏)는 두려워하다는 뜻으로 경외(敬畏), 외경(畏敬)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고, 이(異)는 다르다는 뜻으로 차이(差異), 괴이(怪異)라는 단어에서 사용된다. 결국, 귀(鬼), 외(畏), 이(異) 모

두 추상적인 뜻을 나타내는 글자지만 고대 중국인들은 이를 사람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인체의 동작을 형상화하여 뜻을 나타낸 글자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의미나 대상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상화하여 묘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만약 고대 중국 사회에서 한자가 만들어질 시기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사람보다도 그 당시 가장 크게 느껴졌을 자연현상이나 동물을 기준으로 형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자연현상이나 동물을 사용하면 복잡한 인간보다는 뜻이 더욱 확실히 전달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오래 전 TV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동작으로만 어떤 단어를 설명해야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동작만 보고서 단어를 맞춰야 하는 게임을 본 적이 있다. 그 게임에서 사람들은 단어를 거의 맞추지 못했고, 동작을 설명하는 사람은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해하던 장면이 기억난다. 이렇듯 사람의 동작, 혹은 사람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뜻을 명확히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굳이 '사람'을 형상화하여 글자로 표현했다.

고대 중국인들이 자연현상 보다 예측이 불가하고, 동물보다 복잡한 사람을 글자를 만드는데 사용한 것은 결국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그 사회는 사람이 기준인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을 형상화하여 만들어 낸 글자들이 존재하고, 사람과 사물을 결합시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고, 추상적인 것들을 사람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존재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보다 고대 중국인들에게서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인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학기는 유난히 복잡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시간들이었다. 학교를 다녀야 하는 동시에 취업준비도 해야하는 4학년이어서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증상이 비단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의 원인은 시끄러운 나라 상황 때문인 것 같다. 여전히 이 나라는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 할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겠지만, 나는 이번 학기에 유구한 한자의 역사를 배우며 가장 깊게 느꼈던 점이 이 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모든 것은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기준이 되는 사회이고, 한 사람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이 되지 않는 사회이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사회가 고대의 중국인들처럼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금(禁)줄; 부정(不淨)을 금(禁)하다**

김근아

세 달 전, 가까이 사는 친척언니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집안의 큰 경사였고, 온 친척들이 축하하며 기뻐했다. 그 중 한 분이 우리 외할머니셨는데, 할머니는 언니의 산후조리가 끝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셨다. 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직접 만드신 금줄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는 이제는 효력기간이 지났음에도 방문에 걸어드시기까지 하셨다. 당시에는 금줄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저 한국의 오랜 민간 문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다 ‘문화를 읽는 중국문자’ 수업 중 ‘금(禁)’이란 글자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생겨 깊이 알아보았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禁)’에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이에 흥미가 생겨, 금(禁)줄에 관해서도 더 조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이번 수필에 금(禁)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금할 금(禁)은 수풀 림(林)과 보일 시(示)·귀신 신(神)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신을 모시는 신성한 곳에 숲을 조성하여 잡인(雜人)의 출입을 금했던 고대 풍습에서 유래한 문자다. 한자에서 시(示)자는 신과 관련된 글자로, 제사나 영적인 것들과 관련된 대다수의 글자에 사용된다. 갑골문 示자는 어떤 송배물을 보여준다. 즉 갑골문에서 ‘시’자는 자연신의 거처라기보다는 조상 혹은 송배신의 거처를 나타내는 것이다. 신의 거처를 나타내는 것은 아마 인간이 그들의 거처를 물체를 이용해 나타내는 것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금(禁)의 자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금(禁)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한 ‘돌 제탁(祭卓)’의 상형인 하(下; 下的古字)와, 그 위에 얹은 희생(犧牲)을 뜻하는 ‘일(一)’ 그리고 희생에서 떨어지는 피방울로 구성되어 귀신을 뜻하게 된 示(귀신 기)와 수풀 림(林)을 합한 글자이다. 즉 ‘울창한 숲속의 귀신을 모시는 곳’에서 추출한 ‘꺼리다’가 본뜻이며 널리 알려진 ‘금하다’는 파생된 뜻이다. 설문해자에서도 역시 ‘길흉을 꺼리는 것이다(吉凶之忌也)’라고 해설하고 있고, <<곡례>>에서도 ‘국경에 들어서면 금기(禁忌)를 물었다’고 전해진다. 이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유향의 <신서>에 기록된 당왕의 ‘상림육책(桑林六責)’에 관한 이야기였다. 고대 경전 기록의 여러 군데에서 서술하기를, 상(商)나라 당왕 때 7년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자 당왕은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두 자른 뒤, 백마를 타서 희생의 모양새를 갖추고 상림(뽕 나무 숲)에 들어가 하늘의 자신의 죄를 빌었다고 한다. 그러다 마침내 하늘이 감동하여 한차례의 은혜로운 비가 내렸고 그 후 뽕나무 숲은 신성스럽게 여겨져 상나라 선대 왕조의 성지에 심어졌고, 사사로운 출입을 금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금(禁)이 글자 자체로 굉장히 제사 혹은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금(禁)줄 역시 제사 혹은 토속적인 민간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깊다. 금줄이란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 문이나 길 어귀에 건너질러 매거나 신성(神聖)한 대상물에 매는 새끼줄이다. 벗짚 두 가닥을 성인남자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로 윈 새끼줄을 꼬아서 여기에 다른 물건을 첨가시켜서 만든다. 아이를 낳으면 그 집에서는 대문에다 금줄을 친다. 이 때 금줄에는 남자아이의 경우, 숯덩이와 빨간 고추를 꽂고 여자아이의 경우, 장은 생솔가지와 숯덩이를 꽂는다. 출산의 금줄이 쳐 있는 집에는 그 집의 식구 외에는 이방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이 들락거리면 삼신(三神)이 노해서 아이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와 같이 출산에 관계된 금줄은 지방에 따라 변이양상(變異樣相)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해안지방에서는 마른 미역이나 다시마의 꼬투리를 끼워두는가 하면,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에서는 남자아이의 경우, 조그마한 조약돌을 2,3개 끼우는 곳도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짚 뭉치를 몇 개 금줄에 붙여놓는가 하면 경상남도의 남부지방에서는 작은 칼을 끼우는 곳도 있다. 치는 기간 역시도 지방마다 세이래에서 많게는 일

꼭이레까지 다양하다.

금줄로 사용하는 원새끼는 비일상적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일상적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새끼를 쳐 두는 곳은 일상적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비일상적 공간인 신성 공간임을 상징한다. 이는 음계(陰界)의 속성을 지닌 잡귀가 왼쪽, 즉 양계(陽界)의 속성을 지닌 좌(左)를 두려워하여 이를 피하므로 금줄을 원새끼로 만든다는 해석과 닮아있다. 이는 금줄에 사용되는 재료 모두가 주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줄은 여러 면에서 쓰이고 있어도 그 기본적 의도는 금(禁)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의도의 전제는 주술적인 내용과 관계되어 있다. 현대 단어에서는 그저 ‘금지하다’, ‘금기시여기다’와 같은 저지, 제한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글자가 주술적이고 제(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금(禁)과 같이, 현재 통용되는 뜻에서는 조금 벗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알아가고, 그 글자들에 담겨진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기회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고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오늘날에도 역시 비슷한 뜻으로 통용되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뜻이 파생되어서 현재 우리가 그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 역시 굉장히 가치 있던 시간이기도 했다.

복수전공을 신청해서 처음 듣는 중문과 수업이었는데, 처음 시작을 한자의 자형 원리를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뜻 깊었다. 과제도 많고 스스로 찾아보고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 쉽지 않던 수업이었지만 그만큼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을 시간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무제

김송

무작정 한자를 암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그 뜻을 분석하고 공부해 보니 문득 한자라는 것이 재밌게 다가왔다. 나는 지금 우리가 한자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한자의 어원과 뜻을 완벽하게 추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자수>에 나와 있는 몇몇의 설명들을 보고 역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자를 그렇게 생동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나는 그 중에서도 ‘慕’자와 ‘幻’자에 대한 해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먼저 <한자수>에서는 ‘慕’자를 ‘태양이 점점 사라져 갈 때(해질녘)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물론 개인적으로 설문해자의 설명인 형성자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만, <한자수>에서의 설명이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고 인상 깊었다.

중국의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등낙유원(登樂遊原)’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夕陽無限好, 只是近黃昏.(지는 해가 무한히 좋음은, 다만 황혼이 가까워서이리라)” 나는 전에 이 시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 좋았다. 나는 여행을 가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평소에도 해가 지는 모습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을 하다보면 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나는 석양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물론 그 모습이 실제로 예뻐서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매우 짧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다. 짧은 순간일수록 더욱 아쉬움이 남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대만에서 교환

학생 생활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났다.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져 매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하루하루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유롭고 느긋한 삶을 살면서 대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대만의 생활에 대해 더욱 아쉬움이 남고 남은 날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도 종종 대만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생각이 난다. 물론 대만에서의 생활이 힘들 때도 있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었기에 더욱 아쉽고 좋게만 느껴진다. 마치 하루 중에 가장 짧은 노을이 지는 순간을 무한히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태양이 점점 사라져 갈 때의 마음'이라는 설명은 '慕'자의 의미인 '1.그리다 2.그리워하다, 사모하다 3.생각하다 4.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이 십분 공감이 되어 뜻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다음으로는 '幻'자에 대한 설명이 매우 놀라웠다. '幻'자의 뜻에는 1.헛보이다 2.미혹하다 3.괴이하다, 신기하다 4.어지럽다, 현혹시키다 5.변하다, 변화하다 6.바뀌다 7.요술 8허깨비, 환상 등이 있다. '幻'자는 얇고 기다란 끈이 공중에 걸려 이리저리 훑날리는 모습이다. 옛날 사람들은 바로 끈이 공중에서 왔다 갔다 훑날리는 모습을 '幻'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을 실 하나로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이는 오늘날의 최면술을 떠올리게 한다. 최면을 걸 때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은 눈앞에서 실과 같은 물건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혹은 동생과 역할극 놀이를 하면서 최면을 거는 것을 흥내 내본 적이 있다. 기억이 또렷하지는 않지만 내 기억 속에서 친구들이 내 눈앞에 목걸이와 같은 물건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때 기분이 약간 몽롱하고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이러한 오묘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공중에서 움직이는 실로 쉽게 풀어냈다. 만약 내가 옛날 사람이었으면 이러한 의미를 어떻게 한자로 만들어 냈을까? 지금의 나에게 이러한 개념을 표현해 내라고 한다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정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으로 '幻'의 개념을 표현하는 것보다도 공중에서 움직이는 실이 그 뜻을 나타내기엔 더욱 적합한 것 같다.

이처럼 한자에는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 상상력, 지혜 그리고 삶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결과물로서의 한자는 그냥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지만 한자가 창조되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세월의 흔적과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위대한 보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八의 의미로 보는 중국

김은비

중국인들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많은 숫자들 중 특히 8을 좋아하는가? 发财[fā cái](큰돈을 벌다)의 发[fā]가 八[bā]와 발음이 비슷해 8이 부자가 되는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기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 현지시각 8시에 개막되기도 하였고,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전화번호에 8이 많이 들어갈수록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하기도 한다고 하니 중국인에게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매우 크고, 실생활에도 밀접하게 반영시킬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들은 오래 전부터 그들의 문화 속에서 특정 숫자에 대해 숫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숫자에 그들만의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오게 된 것이다.

이번 학기 문화로 보는 중국문자 수업을 들으면서 卅[píng]이라는 글자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라오원하오(廖文豪)의 『한자수3』에서는 이 글자를 ‘반드시 좌우를 고르게 분배해야만 들보와 기둥이 적절하게 위치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于와 八의 합자라고 설명하였다.<sup>1)</sup> 여기서 八이 分(나눌 분)의 본자(本字)인 동시에 ‘나누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八이 단순히 수량을 헤아리는 숫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칼로 쪼개 나누는 과정’이라는 추가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sup>2)</sup> 公(공변될 공) 역시 八자로 이루어진 글자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한다.<sup>3)</sup> 상용되고 있는 八等身(팔등신)이라는 단어는 ‘머리가 키의 8분의 1쯤 되는 균형이 잡힌 몸집, 또는 그런 몸집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sup>4)</sup> 이처럼 무언가가 잘 나누어지고 평등하게 분배된 상황을 이르는 말과 八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八이 가진 다른 의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八은 四의 두 배를 뜻하기 때문에 四가 가진 ‘각 방면’의 뜻에서 더 나아가 ‘전체, 전부, 모두, 다수’ 등의 의미를 가진다. 四通八達(사통팔달)이라는 사자성어를 보면 八이 가진 ‘전체, 전부, 모두, 다수’ 등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성어는 ‘이리저리 길이 통해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 八이라는 글자가 넓은 범위를 포용하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八方美人(팔방미인)은 ‘여러 방면이나 모든 측면에 탁월한 기량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 쓰인 八 역시 전술한 뜻으로 쓰였다.

이 밖에도 八은 그 자형(字形)에 의거해 ‘이별하다, 헤어지다’와 같은 폼의(貶義)를 가지기도 한다. 《설문해자》에서는 이 글자를 “八, 別也。象分別相背之形。”이라고 하여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모양을 가졌다”고 설명했다.<sup>6)</sup> 이처럼 八이 가진 분리되어 등져있는 자형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지방에서는 노인들이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숫자의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현대 중국인들의 다수가 8이라는 숫자를 애호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다.

이와 같이 八은 ‘나누다, 전체, 다수, 이별하다’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인들의 실생활에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강의 초반에 언어는 인류 사회만이 갖는 특유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에게 언어가 없었다면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을뿐더러 의사소통도 원활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오늘날처럼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언어와 사회는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특정 숫자를 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언어와 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중국의 언어를 깊이 있게 배우려면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서 글을 마친다.

1) 라오원하오(廖文豪) 저, 『한자수3』(甘肅人民出版社, 2015) p.84

2) 김성재 저,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동녘, 2000) p.54

3) 진태하 저, 『한자의 뿌리 300자』(명문당, 2014) p.147

4) 진태하 저, 『한자의 뿌리 300자』(명문당, 2014) p.147

5) 진태하 저, 『한자의 뿌리 300자』(명문당, 2014) p.147

6) 「圖釋古汉字」, p.12

## 종교, 주술과 한자 - 그 오랜 역사

정민철

최근에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터졌다. 사이버 종교 교주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국가의 기밀문서를 제멋대로 훔쳐보고 반출했으며, 대통령의 연설문을 멋대로 고치고 관료 임명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사이버 교주인 최태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놀아난 것이 그 딸에게까지 이어져 그런 독단적인 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긴밀했던 관계가 그 딸인 최순실에게 이어져 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고 결국 청와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종교가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정적 사례가 되었다.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었다. 탄핵(彈劾)이라는 이 글자는 고대의 주술 행위에서 비롯된 글자였다. 탄핵이란 사악한 기운을 떨어버리는 의미의 글자로 사용되었다. 탄은 활을 사용하는 글자, 핵은 정령이 깃든 짐승을 사용한 글자이다. 사악한 기운을 떨치기 위해 활 시위를 잡아당기는 의례가 탄의 의미이다. 그리고 해는 악령을 몰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주술이라고 한다. 정령을 지닌 동물을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용했는데, 저주받은 자는 같은 식의 저주 방법을 통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sup>7)</sup> 결국 탄핵의 의미는 사악한 귀신을 쫓는 방법이었으며, 특히나 이번의 경우에는 이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서 상과 주의 변화는 종교의 세계에서 합리적 세계 세계로 변화하는 커다란 인문 르네상스를 불러왔다. 점복과 제사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 백성들과 피통치자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와 점복 역시도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 방법 중 하나였다. 인간이 그 동안 축적한 통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뢰할만한 무당이 하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식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영역은 정치에서부터 문화, 사회, 전쟁 등등 인간의 광대한 활동 영역 전부를 포함하는 범위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인문적인 르네상스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해도 그 요소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늘에 지내는 제사와 의례들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술을 뜻하는 예(藝)라는 글자 역시도 처음에는 주술적 행위라는 의미에서 시작해 예술로 의미가 정착되었다. 이는 종교와 예술의 구별이 모호하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글자라 할 수 있다. 예(藝)자 이외에도 주술적 행위에서 시작해 다른 의미로 정착한 많은 한자들이 존재한다. 시라카와 시즈카는 구(口) 자의 옛 자형을 입의 모양이 아닌 축문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해 한자의 기원에 주술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글자들이 갑골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의미가 변화했다. 위에서 말했던 탄핵이라는 글자 역시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의 점복들을 보면 인간의 사상적 기원과 의식들이 주술과 종교 체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데,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알기 위해 점이나 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

7) 시라카와 시즈카, 『漢字 백 가지 이야기』, 도서출판 황소자리, 2005, 94~96 참고

대에 들어서도 이런 주술적 행위와 그 수요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와 주술이 가지는 힘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올해 개봉한 영화 곡성은 이런 주술적 행위와 종교에 대해 다루는 영화였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불안한 믿음, 의심, 회의와 공포를 적절하게 연결시켜 관객에게 물음을 던졌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가? 라는 질문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마주했을 때 인간은 이성보다는 초월적 존재인 신에 의존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최후의 시도를 한다. 영화에서도 처음에는 미신이라며 치부하던 주인공 역시도 뒤로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사건들에 무당을 찾고, 굿을 지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주인공들은 알 수 없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찾고 해결하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결국 좌절하고 실패한다. 불가항력적 힘에 저항하는 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술과 종교의 존재가 지금껏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인류의 기원부터 함께 해온 주술과 종교의 흔적들은 결코 쉽게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힘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에 대한 질문 역시도 쉽게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대에서부터 불가항력의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닐까?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의한 불길한 사건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들에 마주했을 때 인간이 믿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주술과 종교의 존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우리는 왜 한자를 배우는가?

조현성

교양, 전공 수업에서 한자를 접할 때마다, 특히 시험 기간에 한자를 빼곡히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피아노와 태권도가 국민 학원으로 불리던 10년 전 지금, 한자 학원 역시 그 열풍 대열에 속해 있었다. 매일 방과 후면 학교 앞 한자 학원에 가 자리를 잡고, 내 이름이 적힌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한자 공책을 꺼낸 뒤에 말없이 오늘 분량의 한자를 써 내려 간다. 반쯤 썼을 때면 선생님이 다가와 검사를 하고, 한자 필획 순서를 지도해준다. 1시간 가량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비로소 하교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6개월간 반복한 끝에 한자 5급 자격증을 땀다. 딱히 한자에 필요성을 느껴서 배운 것은 아니었다. 단지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다닌 것처럼, '다들 다니니까' 그렇게 다녔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선 이후로는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되었다.

내가 한자에 필요성을 느끼게 된 시점은 지금에서 그리 멀지 않다. 군대 전역쯤 해서 아버지와 등산을 하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아니 그냥 흘려 보냈던 아버지의 해박한 지식과 그를 위해 기울인 노력들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다방면에 넓은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특히 역사와 한자 방면에 해박하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문화유적지를 갈 때마다 그 곳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적혀있는 한자들을 해석해주셨다. 나의 한자를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아버지처럼 내 자식들에게 이런 지식들을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지금, 한자들이 낯설게만 다가오는 것은 왜 일까. 아이러니하

기도 반강제로 수학하던 어린 시절에 오히려 한자를 훨씬 편하게, 훨씬 친근하게 여겼던 것 같다. 중국어문화학과에 진학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자 역시 간접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음에도, 어렵다. 중국 간체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일까? 비단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현대의 학생 대다수가 아마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교육 분위기는 예전과 상당히 다르다. 여전히 한자 학원은 여기저기 남아있고, 간판 밑 현수막엔 초등 몇 년 3급 합격, 초등 몇 년 2급 합격 등이 자랑스레 적혀있지만, 예전만큼 아이들로 붐비진 않는다. 지금은 이미 영어, 수학, 종합 학원으로 넘어온 지 오래이고, 한자는 유별난 아이들이 배우는 학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수능 위주의 교육에서 한자는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능은 밥 먹여줄 수 있지만, 한자는 우릴 밥 먹여주진 않으니까. 대학생들에게도 한자는 낯설고 불필요한 존재다. 교양필수 과목으로 한자와 언어생활을 이수할 때만 잠깐 접하고, 그 이후로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취업과 관련 없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취업은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화두이다. 한자를 배워야겠다고 마음 먹은 내가 선뜻 한자에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취업을 코 앞에 둔 4학년이기 때문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본다. 이번 학기 문화로 읽는 중국 문자 수업을 들으면서, 문자의 기원에서부터 한자의 변천사, 더 나아가 직접 한자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고 나름대로의 해석까지 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 내 한자 이름의 다양한 형태를 찾아보고 발표를 들으며 한자 형성 과정에 대해 고민해보고 터무니없는 해석에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자에 대해 한 발짝 더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내겐 가장 뜻 깊다. 회의자와 형성자 등 한자 형성 원리를 통해 의미부와 소리부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한자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기초부터 탄탄히 쌓으라는 말이 괜히 있지 않듯, 기본 개념들을 익히고 나니 한자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이번 방학에는 한자 책을 좀 붙들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긴다.

우리는 왜 한자를 배우는가? 여기에는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나는 역사를 알기 위해 배운다고 생각한다. 한자 문화권의 우리는 한자와 密不可分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지금이야 한글을 쓴다지만, 여전히 한자어들이 쓰이고 있고, 우리의 문화유적들은 모두 한자로 쓰여져 있다. 아버지 세대 선배들은 비교적 한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우리 세대에만 와도 그보다 훨씬 낮으며, 지금 세대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런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먼 미래에는 우리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니 먼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식에게 불국사 한자를 설명하지 못해 무안해하는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곤 한다. 작게는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자를 배워야 하며, 거창하게는 후손에게 우리의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배워야 한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 잃어버린 흥미를 찾아서

고동민

사실 실생활과 교육과정 중에서 한자라는 언어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한자가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를 접하기 시작하여 지금 현 시점까지 약 15년 가량 한자를 접하고 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한자를 공부해온 것은 아니지만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 짧지 않은, 오히려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한자를 접했지만 여전히 한자라는 언어는 나에게 있어 커다란 산이자 높은 벽이다. 이러한 나에게 있어 “문화로 읽는 중국 문자”라는 수업은 거대한 벽에 조금이나마 금을 가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수업이다.

뭔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규 교육과정 혹은 사교육을 통해서 한자라는 언어를 오랫동안 접해왔지만 한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해 왔는지, 한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지식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않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 이번 수업은 이러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자라는 언어는 단순히 암기해야 하고 복잡한 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문화로 읽는 중국 문자”라는 수업은 한자라는 문자를 이해 하고, 잃어버린 흥미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간단히 樂을 예로 들면, 이 글자가 노래(악)이라는 글자이며,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저 복잡한 글자가 어떻게 해서 노래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질 뿐 그 외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한자수라는 책과 설문해자의 설명을 통해 樂이 예전 갑골문에서는  으로

나무에 끈을 묶어 소리를 내는 악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문  과 소

전체  를 보더라도 갑골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해서 노래(악)이라는 글자가 생겼는지 유추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뿐더러 현재의 의미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업을 통해 막연하고 어렵기만 했던 한자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거대 하게만 보였던 한자라는 산이 조금은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시대를 역행하는 근본주의자들

신중현

‘문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고등학교 때 즐겨보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던 대사이다. 드라마 그 자체는 그리 깊은 주제의식을 담았던 작품은 아니었지만, 저 한마디의 대사가 여전히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이유는 사람과 세상을 속박하는 문자의 힘 그 자체에 필자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자는 사물과 현상의 역사적 유래와 그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듯이, 문자 또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의미적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사회발전 단계를 거부

하고 시대를 역행하고자 하는 집단이 ‘근본주의자들’이란 이름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짧게는 1400년 길게는 2,000여 년 전의 경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극단적인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광란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문자의 표면적 의미에 심취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근본주의자들의 탄생은 비단 특정 분야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들은 중동에도 있고 유럽과 북미에도 있으며, 종교계에도 있고 또한 사회와 정치계에도 존재한다.

처음으로 민(民)이란 문자가 갑골문에 등장하던 시기, 다수의 피지배자인 백성들은 지배자들로부터 강제로 한쪽 눈이 찢려(辛) 무지한 노예로 살았어야 했으며, 지방의 현 정부(縣府)는 효수한 죄인의 머리를 관공서 앞에 거꾸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용하는 습속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공포와 억압을 매개체로 민(民)을 다스리던 시기였던 문자 생성 초기의 사회는 분명 현대적 관점에서 암흑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흘러 민(民)이 사회와 국가의 주인(主人)이 되었으며, 억압의 주체였던 지배자 즉 국가 통치권자들은 민(民)을 대표하며 섬기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표면적으로나마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위치 및 사회적 지배구조가 바뀐 듯 보인다. 하지만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인 ‘박근혜 게이트’가 사회의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단어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론과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연 우리는 민(民)이 주인인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손으로 국회나 청와대로 보냈던 이들은 과연 우리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대표란 이름의 주인인가?’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문자(또는 언어)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한 사람이 쓴 글과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묻어 나오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民)의 하인이자 대변인인 국가 관료 및 국가통치권자는 어떠한 문자와 언어로 자신의 주인을 묘사하였을까? 2015년도의 추석 기간, 청와대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60만 장병들에게 특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하사(下賜)’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에게 멀치 몇 조각이 들어간 도시락으로 생색을 내려 하는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하사(下賜)’라는 단어 사용이었다. 봉건시대의 왕이 신하에게 금품을 줄 때나 사용되는 단어를 60만 국민(비록 군인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직업군인이 아니며 전역 후에는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을 대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철학을 문자를 통해 내비쳤다. 2016년 7월 교육부의 한 고위관료는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을 하여 전 국민의 분노를 샀으며, 춘천시 국회의원 김진태는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 살인 진압은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정치인 및 행정가들의 망언은 모두 ‘박근혜 게이트’ 이전에 이슈화된 발언들이며 권력자들이 민중을 향해 쏟아내었던 수많은 망언 속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나라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아니었음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언급하지만 사실 그간 국가 권력자들이 쓴 글이나 발언 속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게이트’는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재앙 혹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 뿐 아직도 전근대적 봉건주의의 통치사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 기생하려 하는 ‘정치적 근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 보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이다.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나무(木)를 관찰하는데 너무 집착하여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本)가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성서에 적혀져 있는 문자의 표면적 의미에 집착하다 정작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성(인류애, 관용)에 대해 망각하고 극단적 사상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근본주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정치 성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필자는 잘 알지 못하지만(혹은 애당초 민주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정치철학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만) ‘집권을 위한 정치’, ‘권력 수호를 위한 정치’를 수십 년째 반복하는 사이 민주사회의 핵심이자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민(民)이 망각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다. 공자는 정치에 대한 자공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대한 백성의 믿음’이라 언급하면서 국가 통치권자와 백성의 관계를 신뢰로 규정하였으며, 맹자 역시 국가 또는 종교의 권력이 민(民)에 의해 성립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2,000여 년 전 성인들의 말씀이 무색하게 여의도의 ‘정치적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권력과 민중의 관계가 여전히 ‘죄인과 노예들의 목을 권력자가 밧줄로 속박시키는(係)’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부디 그들이 이젠 나무 아래 묻혀있는 뿌리에도 눈길을 돌려주길 바라며 정치 철학의 수준 또한 적어도 상대(商代)에서 춘추전국시대까지는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 清廉曰, “이러려고 만들어 졌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정민정

청렴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이 ‘청렴’의 단어는 주로 ‘청렴결백하다’로 많이 쓰이는데, 선거기간이나 청문회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왜 특히 정치적인 공간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일까?

청렴의 한자는 맑을 청(淸)에 청렴할 렴(廉)자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청(淸)자를 살펴보면, 푸를 청(靑)자에 삼수 변(彳)이 합쳐진 글자로 푸르고 깨끗한 물 즉, 맑은 물을 나타낸다. 그래서 맑다, 깨끗하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으며, 탐욕이 없다, 사념이 없다 등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렴(廉)은 뜻을 나타내는 엄호(广)와 음을 나타내는 겸(兼)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결백하다, 청렴하다, 검소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汉字树』3권에서는 이 렴(廉)자를, ‘가게에서 한손으로 두 개의 수확물(소득)을 얻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저렴하다는 일차적 의미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청렴(淸廉)이란, 한자의 풀이를 보면, 욕심이 없고 결백한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왜 정치적인 공간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위에서가 아닌 국민들의 옆에서 소통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권력이 아닌 의무이자 숙제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사사로운 욕심보다는 공익을 위해야 하고, 숨김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덕목이 ‘청렴’인 것이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가령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

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이는 곧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즉, 정치에서 청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는 생각이,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청렴은 비단 정치인이나 공직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청렴한 사람인가?’ 나는 학창시절 늘 학급임원을 맡아왔다. 그때마다 크고 작게 학급의 돈을 관리할 일이 있었다. 사실 나는 돈을 무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이 점에 대해서는 청렴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말하기 어렵다. 학급임원을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또는 조금 더 많이 특혜를 주기도 했고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그리고 학급임원이라는 것은 학급과 선생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내가 다른 학우들보다 더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였다. 즉, 학급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권력으로 여긴 것이다. 결국 나 자신도 이런 작은 조직 안에서조차 완벽하게 청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청렴은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지켜지고 또 어겨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청렴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 있는데, 나의 어머니께서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신 만큼, 후배들이나 환자들로부터 고마움과 존경의 표시로, 그리고 때로는 부정한 이유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그 선물들을 모두 돌려보내곤 하신다. 나는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이런 선물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답답하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고 계셨는데, 바로 본인의 양심이다. 어머니께서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동물인 만큼, 자신도 선물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 하셨다. 하지만 이것을 받고 난 다음 조각나 떼어질 자신의 양심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셨다. 또 그 선물을 돌려주었을 때 쾌감과 자부심은 그 어느 선물보다 값지다고 하셨다.

나는 이를 통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한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사람은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렸다. 이 시국에서, ‘청렴(淸廉)’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았다

박예지

아직까지도 똑똑히 기억하는 그 이름, 바로 이상대 선생님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에게 시련을 주신 분 말이다. 선생님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한자 수업을 하시다가 다음 시간까지 '자기 이름 한자로 100번 써오기'를 숙제로 내주셨다. 그때까지는 그 숙제가 그렇게나 어려운 숙제인 줄 몰랐다. 하교 후 어머니께 내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여쭙보았고 어머니도 "재주 예"라고 대답은 해주셨지만, 컴퓨터를 켜고 한자 변환 키를 눌러서 어떻게 쓰는지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다. 藝. 순간 뒷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글자 포인트를 80으로 키워야지만 한 획씩 따라 그려볼 수 있었고 그렇게 100개의 '藝'자를 공책에 가득 쓰며 이런 숙제를 내주신 선생님을 원망했다. 동생의 이름도 내 이름과 비슷한 '예나'인데 왜 한글 이름이고 나

는 이렇게 어려운 한자냐고 엄마께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다른 예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재주 예'를 썼냐며 심통을 내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내 이름을 다시 한자로 쓰게 되었을 때는 훨씬 수월해졌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아주 간단하게 다섯획만 그리면 되는 간체자 藝를 알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藝知 혹은 艺知는 그냥 '예지'라는 내 이름의 또 다른 표기일 뿐이었다. 그것은 다만 글자에 지나지 않았다.

1990년도 초중반에 무슨 '예지' 열풍이 불었던 것인지, 많은 예지들이 태어났다. 덕분에 나는 학창시절 항상 또다른 예지들을 만났고 중학교 때는 박예지, 문예지, 이예지, 추예지 제각기 성이 다른 예지가 네 명이나 있었다. 한 집단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썩 달가운 일은 아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면 그게 나를 지칭하는 것인지, 나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할 뿐더러 은근한 비교상대가 되어 묘한 라이벌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흔한 내 이름이 마냥 좋지는 않았다.

이런 내 이름이 좋아진 순간은 대학교 2학년, 자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은 뒤부터이다. 신나던 새내기 시절이 지나고 앞으로의 나아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할지 참 많이도 묻고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藝'를 발견했다.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藝'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단순히 '예'라는 음이 아닌 그것이 가진 뜻이 그제서야 비로소 참 소중하게 느껴진 것이다.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신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음악회, 오페라, 전시회 감상과 더불어 직접 피아노, 바이올린, 그림, 연기, 수영, 테니스 등을 하면서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단지 비교적 어릴 적부터 내가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실력을 연마해야한다는 부담 없이, 학업에 대한 걱정없이 그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재주'나 '예술'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너무 좋고 즐거웠고 그런 '藝'를 안다(知)는 내 이름이 칭찬처럼 느껴지고 참 좋았다. 영화와 사랑에 빠져 생업으로까지 삼고 싶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藝知'라는 나의 이름은 너무나도 의미있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더군다나 "제목 따라 간다"가 은근한 정설이 된 영화계에서 '나'라는 존재의 제목인 '藝知'는 정말 따라 가고 싶은 제목이다.

내 이름에 대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한자가 음과 뜻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문자라는 점이다. 한자는 단편적인 사물은 물론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하나의 문자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며 한 글자마다 각각의 음을 지니고 있다. 고로 나는 '예지'라는 소리로 불리는 존재임과 동시에 '藝知'라고 쓰이며 '藝知'라는 뜻을 가진 존재이다. 이때까지만해도 내 이름에 대한 인식은 불과 이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의 뜻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에 내 이름을 좋아하게 되었다. 한 학기동안 '문화로 읽는 중국 문자' 수업을 통해 또 한번 나의 이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고 더욱이 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자는 단순히 形, 音, 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자는 3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며 갑골문부터 지금의 간화자까지 오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각 시대별로 각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글자를 이루고 있는 획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바로 당시의 생활상과 기술의 발달, 문화, 편리 추구 등의 맥락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藝'의 초기 형태는 '執', '𠄎' 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초목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나무를 심어 가꾸는 일이나 기술인 '원예'를 뜻하고 있으며 조자

(造字) 당시에는 이렇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원예가 가장 뛰어난 재주의 형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향초를 뜻하는 '芸'자를 더해 풀을 심는 원예라는 재주의 뜻을 강조했다. 후로 가면서 더욱 의미가 추상화 되며 의미가 확장되는데, 바로 생존이라는 것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위가 아닌 나무 심기가 작위적인 의미를 가지며 종교적이거나 예술적인 행위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藝'가 지금 우리가 알고있는 예술이라는 뜻의 글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편리를 추구하면서 보다 간단하게 변형시킨 것이 '艺'이다.

이제껏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어 오며 많은 변화를 겪은 한자. 스마트 시대에 들어서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외워야 하는 한자가 이제는 죽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한자가 걸어온 길을 살펴 보며 한자야말로 살아있는 문자라고 느꼈다. 의미적인 부분이던, 음이던, 형태이던 시간에 인류의 삶에 발맞추어 끝없이 변천해 왔듯 앞으로로도 계속 쓰이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藝' 역시 변화에 있어서 현재진행중인 글자인 듯 하다. 더이상 '藝'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하고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또 그것이 지칭하는 형태적, 장르적 제한은 허물어진지 이미 오래며 점점 개인화,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날로 발전하는 기술로 예술의 저변 역시 보다 확장되고 있다. 더 극단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곧 예술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이 시대와, 더 나아가 미래에는 한자사전에서 '藝'의 의미가 어떻게 풀어질지 생각해본다. "음악은 세계 공용어이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하나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깔이다"라는 유명 예술가들의 말처럼 내 삶과 감정, 생각을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진심으로 심고 다듬어 나타낸다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미적 요소를 가졌던 간에 '藝'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 글의 제목으로 붙여보았다. 13년 전, 초등학생에게 한자는 그저 음을 복잡하고 어렵게만 표기한 글자에 불과했다면, 음 뿐만 아니라 뜻에 집중했을때 그 한자는 또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왔으며 한자의 조자원리와 맥락을 들여다 보았을때 비로소 그 글자를 이해하게 되었다. 김춘수는 이 시에서 모든 사물이 언어를 통해 불러졌을때 비로소 그 존재가 의미있게 된다고 말한다. 한자야말로 단순히 형태나 음으로만 존재하는 글자가 아니라 形, 音, 義, 脈絡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완성적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한자 에세이를 구상하려 했을때 이 시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또한 수업의 후반부에 한자수를 번역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다하더라도 다양한 주장이 제공되어야 공론화가 시도되며, 검증하는 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한자의 가치가 유지되었고,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한자, 더 나아가 중국어, 언어, 모든 것에 접근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임해야할까, 이에 대해 앞으로는 다만 무언가에 지나지 않던 것을 부르고, 들여다보고, 고민해보는 나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漢의 글, 漢字와 오늘날의 中國 문자

김태양

중국인들은 한자(漢字)를 통해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창조하여왔고 독특한 문학·예술형식과 내용을 발전시켜왔으며, 한자(漢字)가 있었기에 살필 수 있는 역사적 문헌기록 등이 많이 남아있어 한자(漢字)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가치가 큰 만큼 한자(漢字)를 향한 중국인의 자부심도 커져 중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한자(漢字) 주인의식’이 있는 셈인데, 구체적으로 중국 문자를 ‘한자(漢字)’라고 부르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한자(漢字)’라는 단어가 지닌 역사적 한계와 오늘날 중국 문자를 바라보는 고민을 담은 글이다.

한자(漢字)의 사전적 정의는 ‘고대 중국(中國)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表意) 문자’이다.<sup>8)</sup> BC 1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은허(殷墟) 유적지에서 출토된 갑골 문자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자의 원형(原形)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中國)의 문자는 한자(漢字)이다. 그러나 한자의 기원은 은(殷)에서 사용된 갑골 문자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문자를 ‘은자(殷字)’라 부르지 않을까?

한자는 그 기원(起源)을 갑골문(甲骨文)에서 찾는다. 갑골문은 1899년에 국자감(國子監) 제주(祭酒) 왕의영(王懿榮)<sup>9)</sup>이 문자라고 여기기 전까지는 평범한 은허의 출토물일 뿐이었다. 갑골문과 한자(漢字) 사이에는 먼저,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銘文), 곧 금문(金文)도 있는데, 이는 갑골 문자와 같은 계열로 서주 시대의 청동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갑골 문자와 함께 한자 발전의 한 과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갑골문을 기원으로 하는 중국의 문자를 은자(殷字)라 부르지 않듯이, 역시 금문의 존재로 인해 ‘주자(周字)’라고 부를 법도 하지만, 오늘날 중국의 문자는 ‘한자(漢字)’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전국(戰國) 시대에 이르러 수많은 각각의 나라들은 문자 쓰는 방법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쓰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대체적으로 이들을 통칭하여 ‘대전(大篆)’이라고 한다. 이후 진시황(秦始皇)에 의해 중원 대륙이 통일되었고 진시황은 이사(李斯)를 불러 문자 또한 통일시켜 ‘소전(小篆)’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민간에서는 예서(隸書)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고문(古文)을 간단하게 하자는 운동의 결정체로서, 전한(前漢) 중기 이후에는 오로지 예서만이 남게 되었다. 다양화된 중국의 고문을 통일한 진(秦) 대(代)를 기려 ‘진자(秦字)’가 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알다시피 ‘한자’는 ‘한자(漢字)’다.

중국 문자를 ‘한자(漢字)’로 부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족(漢族)’의 역사를 알아야 하겠다. 한족의 ‘한(漢)’은 한(漢)나라의 ‘한(漢)’에서 등장하였다. 한(漢) 대에는 예서가 통용(通用) 문자가 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지금의 문자, 곧 금문(今文)이라 하였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앞선 진(秦) 대에 죽간(竹簡)에 쓰인 과두문자(蝌蚪文字)와 종정(鐘鼎)에 쓰인 금석문자(金石文字)를 고문(古文)이라 칭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 국가의 문자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난 ‘한자(漢字)’이기보다는 고문(古文)을 이어받아 사용하는 금문(今文)이었던 것이다. 후한(後漢)의 왕차중(王次仲)은 한(漢)의 예서(隸書)를 개량하여 해서(楷書)를 만들었고, 이후 이것이 정체(正體), 곧 표준이 되는 문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중국의 문자가 한(漢)의 글자, 즉 ‘한자(漢字)’가 된 것이다.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9) 1845년 출생 ~ 1900년 사망.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정의에 의한 결과이니, 중국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겠다. ‘한자’는 정말 ‘한자(漢字)’인가? 전자의 ‘한자’는 중국(中國)의 문자를 말하고 후자는 말 그대로 한(漢)나라의 글자를 뜻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정말 같은 의미이냐는 질문이다.

한자는 중국의 문화를 담고 있는 훌륭한 그릇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국(中國)’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나간 주체는 ‘한족(漢族)’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중국의 역사라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적 개념으로써의 ‘중국(中國)’의 역사가 단순히 ‘한족(漢族)’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사실 중국의 역사가 오로지 ‘한족(漢族)’ 중심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려고 해도 그렇기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순수한 ‘한족(漢族)’의 왕조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국가도 손에 꼽을뿐더러 그 역사적 기간 역시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문자를 ‘한자(漢字)’로 명명(命名)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 한(漢)나라 사람들에게도, 중국문자는 ‘한자(漢字)’가 출발점이 아니었고, 수많은 왕조와 나라들의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에 변화(특히, 간화(簡化))를 거듭한 중국문자의 종착지도 순수한 의미의 ‘한자(漢字)’ 곧 한(漢)나라의 문자로 귀결되지 않는 지점을 인식한다면, 지금의 중국문자는 ‘한자(漢字)’라는 단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자(漢字)’는 한(漢)의 글자일 수는 있어도 중국의 문자가 될 수는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의 문자를 ‘한자(漢字)’라고 부르는 몰라도, 중국 문자 자체가 ‘한자(漢字)’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中國)’이라는 역사적 개념이 만든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르겠다. 역사적으로 중원 대륙에 생긴 국가의 국호 자체가 ‘중국(中國)’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중원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에 생겨난 모든 국가를 ‘중국(中國)’으로 포괄하여 부르고 있다. ‘중국(中國)’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역사적 개념으로 세상에 존재하였기에 한(漢)도 중국이라 부르고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문자 = 한자(漢字)’라는 도식은 성립할 수 없고, ‘중국의 문자 ⊃ 한자(漢字)’라는 식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

‘한자(漢字)’가 중국 문자로 통칭된 지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 관용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한자(漢字)’라는 단어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오늘날의 중국 문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무게를 듬뿍 적셔 지금의 ‘한자(漢字)’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한자를 ‘한자(漢字)’로 부르는 것과는 질적인 깊이의 차원이 전혀 다른 이해를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추상적임’에 대한 고찰

장은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할 수 없거나 알 수 있는 그런 일정한 형태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관습이나 감정, 성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들이 그러하다. 내가 처음 추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를 접했을 때 들었던 의문은 실체도 없고 정확히 알 수도 없는 문자를 만들어서 대체 어디에 쓰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수업에서 초기 문자는 의사소통 목적이 아니라 신과 특정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일종의 지위였으며, 신의 의지를 일정한 시간 속에 정착시키는 행위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은 형태가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의지나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문자의 발생 이후 사람들은 감각에만 의존해 교류하다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들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 글자들로 하여금 시대를 기록한 것이 발전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것보다 추상적인 것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 의문점은 완전히 해소되고,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옛날에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심심하다, 적적하다, 충만하다, 이런 감정들을 말이다. 하지만 명문 감상 수업에서 자연에 빗대어, 혹은 작품 자체에서, 문체에서 오는 분위기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읽는 사람에게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굳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문학 작품의 장점인 것도 이번 기회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의문은, 한자, 즉 문자를 처음 접할 때 추상적인 그 의미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통용되었을까? 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께서는 ‘好’의 뜻을 좋다. 라고 설명해주시면서 왜 뜻이 ‘좋다’라는 것인가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여자(女)와 남자(子)가 서로 붙어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며 그저 그렇게만 외워두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는 일리 있는 설명이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이 문자 수업을 듣게 되면서 궁금증이 다시 살아났다. 1강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서 책에 써져 있는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읽는 사람이 어떻게 알까? 라는 질문에서 생겨난 궁금함이기도 했다. ‘좋다’라는 감정을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하게 하면 좋을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호기심일 수도 있고, 호감일 수도 있고, 현격히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에 설문해자 好의 뜻을 보니 그저 아름다움, 예쁨이라는 뜻 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덧붙여 사물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빗대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한자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한자수(汉字树)에서는 사람의 심정을 나타내는 글자를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뉘우칠 천, 참(忖)자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심장 모양을 본 뜬 그림을 사용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것은 두려워 할 천(惴)자를 설명할 때도 역시 사용되었는데, 선과 악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저런 글자를 본 후 내가 추측해 본 설명 방법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건에 따라 달라지니 제일 기본적인 것, 혹은 이해되기 쉬운 상황을 예로 들어 다른 여러 부수적인 현상들에 대입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설명되었던 것이 지금은 다른 뜻으로 파생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설명에 설명을 거듭해 온 것이 아닐까? 두서없이 적어놓았지만 나름대로 추상적

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내놓은 결론이다.

종합해보자면, 추상적인 문자는 그 추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맥락, 사회의 여러 쟁점들과 연관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추상적인 단어를 나타낼 수 있게 되면서, 간략화한 그림과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사이의 필연적 연관 관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었다. 문자 문화는 이처럼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에 사회, 시대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방법일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 글자가 반영하는 시대

염규리

“蒼頡作書에 而天雨粟하고 鬼夜哭하니라. (창힐작서에 이천우속하고 귀야곡하니라.)”

이 문장은 《회남자(淮南子)·본경훈(本經訓)》에 나오는 말로서 창힐이 문자를 만들자 하늘은 곡식을 뿌리고 귀신들은 밤새 울었다는 뜻이다. 창힐은 중국 고사 속의 한자를 창시했다는 사람이다. 즉 문자가 생기자 하늘은 곡식을 뿌리고 귀신은 울었다는 소리다. 한자는 표의문자이며 하나의 글자마다 글자가 내포한 뜻이 있다. 이런 속성을 담아 고대인은 이를 언어가 정립한 우주의 질서와 동일시하였다. 그러니 문자가 만들어지자 ‘이천우속’하고 ‘귀야곡’ 하였다는 말은 이전에는 없던 질서로 인해 그간의 무질서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문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도록 만든 인류의 발명품이다. 처음에 누군가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가듯 더 많은 문자가 덧붙여져 지금의 문자체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중 한자를 중국에서는 창힐이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고사나 다름없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고대인들은 한자에 귀신이 울 정도의 주술성이 담겨 있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번 문화로 읽는 중국문자를 수강하면서, 한자에는 중국인들의 문화가 빼곡히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는 특히나 한자의 표의적 특성으로 인해 두드러졌는데, 갑골문을 해석하면서 보았던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는 일단 글자의 생김새부터가 당시 사람을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상형적이었으므로 갑골문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시대상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보는 기본이었다. 이는 갑골문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던 시라카와 시즈카의 학술을 채택하여 본다면 그 흥미가 더해진다.

시라카와 시즈카는 ㄷ란 글자를 그릇 속에 축문이 봉인된 상태라고 보았다. 그전의 중국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ㄷ을 입으로 해석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시즈카는 고대인들의 생활양식과 제례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애초에 갑골문이 제례적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ㄷ란 축문을 넣은 그릇 위에 작은 나뭇가지가 꽂혀있는 형태라고 한다. 즉 신에게 고하여 호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ㄷ과 이어져 충분히 맥락을 가지게 되는 해석이다. 이에 이어서 그는 말을 뜻하는 言이란 신에 대한 맹세이며, 소리를 나타내는 音이란 신의 메시지라고 풀이한다. 이 音에 心이 붙으면 뜻이란 의미의 意가 되며, 그 의미 또한 신의 뜻이라고 한다. 고대인의 시각으로 신의 뜻은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을 묘사한 神의 근원이 제단 위로 내려치는 번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를 공고히 한다. 고대인들에게 신의 음성이란 번개가 제단 위로 내리치는 때에 울리는 천둥 소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글자가 종교적 혹은 미신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확실히 한자의 발생이 현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제정일치 시대의 오로지 종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글자임을 생각할 때 유의미해진다. 그러므로 시라카와 시즈카는 한자의 상형에 대해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회화가 아니라 추상을 글로 옮겨 담은 것을 뜻하며, 그렇기에 상징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를 중국 학계가 전부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시라카와 시즈카의 주장을 생각한다면 고대인들의 문화가 글자 안에 빼곡히 녹아 들어가 있음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가장 현실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는 신조어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담긴 문화가 생생하다는 말이다.

시라카와 시즈카의 주장에 대해 배우며 내게 든 생각은 각 시대의 언어, 특히 문자는 마치 역사책마냥 그 시대를 함축하여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특히 ㄷ이란 한자가 축문을 넣은 그릇이라는 점을 들으며 현대의 새로운 문자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흔히 누구나가 생각하듯 우리는 만들어진 문자를 그대로 답습하여 쓴다고 여겼지만, 그 문자에 담긴 의미를 엿어보니 지금 시대에 우리 또한 새로운 시대의 문자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스템의 전자화에 맞춰 탄생한 이모티콘들이 있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여 본다면 현대에 우리가 쓰는 신조어 또한 지금 만들어지는 문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문자가 탄생하는 데에 체계가 있듯이 신조어에도 체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진 것이다. 갑골문 시대에 제례와 미신이 사람들 사이에 가장 널리 퍼진 사고방식이었다면 현대에는 속도가 우리의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더 빨리,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 공통된 욕구가 만들어낸 신조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들을 대폭 줄이고 사이의 글자들만 편리하도록 뽑아낸다. 자음만 쓰는 통신 언어라든가 여러 단어의 합성 문장을 각 단어의 첫머리만 골라 모아놓은 신조어들이 그 예시이다. 물론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지만, 갑골문과 금문이 다르고 또한 현대의 중국어까지 그 문자가 변화해왔음을 볼 때 '그래, 알겠어.'를 'ㅇㅇ.'로 수정하여 쓰는 방식도 현재 문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문자가 반영하는 현대의 문화는 편리함과 신속함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ㄷ의 또 다른 해석을 살펴보면서 현대에도 문자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척 뜻밖의 일이었다.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바뀌면서 맞춤법이 해마다 고쳐지는 일도 그저 쉽게 지나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 움직이지 않았던 사고방식을 뒤집어 현재를 볼 수 있었던 경험이, 과거의 글자를 살펴보며 일어났다는 사실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사실을 새삼스럽게 직시할 때 느끼는 작은 깨달음이 내게는 다른 시각을 주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점차 언어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어렵פות이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